

세계농약시장 '93분석과 '94전망

실질 성장률 1.7% 감소

「우드메켄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세계농약 매출액은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하여 2백52억8천만 달러로 1992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달러화의 환율변동 등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1.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표1).

지난 1년간 세계시장의 매출액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은 유럽공동체(EC)의 공통농업정책에서 야기된 서유럽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감소요인이 세계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

본의 매출액 증가에 의한 전체시장의 매출액 증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 달러화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세를 나타냈다(표 2).

유럽회사들 대부분 감소

지난해 초 각 회사들은 92년에 이어 서유럽시장의 감퇴와 더불어 매우 어려운 일년이 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연말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악화되었다. 국내판매의 신장과 함께 엔화의 상승에 힘입어 일본의 농약매출액은 달러로 환산할 경우

증가를 보였다. 미국은 「아메리칸사이나미드」와 「몬산토」의 판매액이 증가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회사들은 감소했다. 특히 판매액에서 많은 감소를 가져온 「쉐링」과 증가를 보인 「산도즈」는 매우 대조적이다.

재배면적 감소, 공통적

지난 한해동안 세계시장에서 가장 현저하게 판매액 감소를 가져온 곳은 서유럽국가들이다. 공통농업정책으로 인해 휴경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의 감소는 그만큼 농약사용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유럽에서 가장 크게 감소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와는 다르게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은 기후 등의 조건들 때문에 감소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서유럽은 미국달러화로 환산하여 92년 매출액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에 실질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시장은 지난해 2/4분기의 홍수로 말미암아 일부작물에서

표1. 세계 농약 매출액(1990~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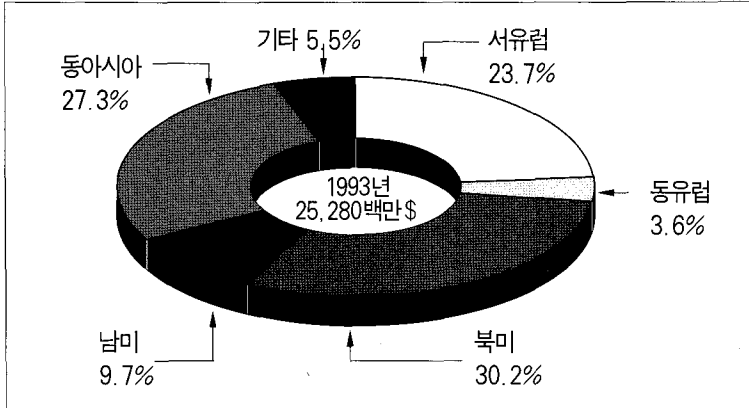
(소비자가격 기준)

	1990	1991	1992	1993
세계 농약 매출액(백만\$)	26,400	26,800	25,200	25,280
전년 대비 성장률(%)	+9.6	+1.5	-6.0	+0.3
전년 대비 실질성장률(%)	0	-2.0	-5.1	-1.7

표2. 미국 달러당 국가별 환율비(1991~1993)

국가명	화폐단위	1991년말	1992년말	1993년말
일본	Yen	125.6	124.8	111.6
독일	DM	1.52	1.62	1.74
프랑스	FFr	5.18	5.53	5.90
스위스	SwFr	1.36	1.46	1.49
영국	£	0.536	0.661	0.676
이태리	Lire	1149.8	1473.4	1712.0

그림1. 지역별 농약판매액 분포



제초제 사용이 늘어났고 높은 습도로 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살균제 소비 또한 팽창한 것이다. 살충제 역시 목화재배지역의 사용량이 늘어났을뿐 아니라 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아 사용량이 증가했다. 캐나다는 곡류와 옥수수 등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농약판매액의 신장을 보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의 농약매출액은 증가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농약매출액이 92년대비 1.5% 정도 증가하여 92년에 이어 계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역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 중국의 농약매출액은 과수, 채소분야에서 특히 증가했으나 농약의 수입은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감소했다.

살충제 강세, 살균제 약세

농약의 제품별 판매는 일반적으로 기후조건, 재배면적, 병해

충 발생상황, 제품의 가격, 농가 관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의 제품별 판매에 있어서는 살충제의 판매가 가장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동아시아 지역 과수, 채소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판매신장을 보였다. 제초제도 판매가 증가했으며 북미와 동아시아가 성장을 주도했다.

한편 살균제의 판매액은 감소했다. 유럽의 곡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병 발생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94 세계 농약시장 전망

지난해의 세계경제는 불경기 상태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경기회복 현상은 미국,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안정을 찾았으며 일본도 곧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의 세계GDP는 지난해의 전년 대비 1.3% 상승에서 약간 신장된 2.3%가 될 것으로 전망

표3. 1993년말 세계 20대 농약회사

순위	회사명	매출액(백만달러)
1	Ciba-Geigy	>2,500
2	Du Pont	>2,000
3	Monsanto	1,600-2,000
4	Zeneca	
5	Bayer	
6	Rhone-Poulenc	
7	DowElanco	1,000-1,600
8	Hoechst	
9	American Cyanamid	
10	BASF	600-1,000
11	Sandoz	
12	Schering	
13	Shell	
14	FMC	400-600
15	Sumitomo	
16	Kumiai	
17	Rohm & Haas	
18	Sankyo	
19	Nihon Nohyaku	
20	Ishihara	

* 합병한 Hoechst와 Schering의 매출액을 합할 경우 AgroEvo(Hoechst와 Schering의 합병후 새로운 이름)는 세계농약시장에서 2위를 차지한다.

된다. 또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의 3.2%에서 3.1%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세계농약시장은 유럽시장의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세계농약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농약정보**